

## February 20 예배는 구별이다

• 창세기 4:1-7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두 예배의 차이는 ‘구별된 예배인가’에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the one)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 중 하나(one of them)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출애굽 시키신 것입니다(레 22:31-33). 구별된 예배에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지 않은 예배에는 비교와 원망, 욕망의 간청, 거레가 담깁니다. 나의 시선, 마음, 생각이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Cain lost his temper and went into a sulk”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단단히 빠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창 4:7)고 물으십니다. 예배의 실패는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가 실패한 원인이 가인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예배의 실패를 가져올까요?** “선(right thing)을 행하지 아니하면”(창 4:7). 이는 ‘예배가 옳지 않았다’와 ‘예배자로 살지 못했다’, 둘 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은 예배, 또 회개 없이 죄의 모습 그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그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이들은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 ① 나의 시선, 마음,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 ② 예배자로서 삶에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